대입제도 정책만 난무 학교 혼란 극에 달했다

"본고사·논술 등 어떻게 돼나" 막막

차기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최근 잇따라 본고사 도입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일부 대학이 '수능점수 공개시 정시논술 폐지 검토' 입장을 밝히자 예비 고3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나 수도권 대학 관계자들이 불확실한 가정과 전제를 앞세워 입시 방식의 대변화를 쏟아내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들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진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수능등급제가 2009학년도에도 지속될 것인지, 논술고사는 폐지되는지, 본고사가 과연 부활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 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속만 태우고 있다.

대성여고 진학담당 심백 교사는 "학생들의 문의가 있어도 그저 너희들은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 외에 달리 해답이 없어 답답하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들을 하루 아침에 크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광덕고 2학년 부장 임채순 교사는 "등급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없어진다는 말들이 들리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유예 기간을 적어도 2~3년은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워낙 여론이 안좋아 당장 크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광덕고 2학년 박모군은 "수능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등급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능 과목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 가장 불안하다"며 "언어·수리·외국어는 유지되겠지만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능등급제가 폐기되고 점수제가 도입될 경우 논술을 폐지할 수 있다는 수도권 일부 대학의 발표를 놓고 혼란이 배가되고 있다.

광주시내 모 논술학원 관계자는 "며칠 전까지 논술학원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다가 대학들의 입장 발표를 보고 논술을 준비시킬지 말지 고민된다는 학부모도 있었다"며 혼란이 너무 심하다고 전했다.

혼란스럽기는 재수생이나 입시학원들도 마찬가지다. 재수를 선택한 김모군은 "등급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재수를 선택했는데 정책이 바뀐다고 하니 더 헷갈리게 됐다"며 "논술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털어놓았다.

광주대성학원 김현철 팀장은 "3월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커리큘럼을 짜야하는데 2월에 있을 발표만 목매어 기다리고 있다"며 "자꾸 수도권 대학의 관계자들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만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톤아카데미 서정현 원장은 "올해 수능에서 논술의 비중이 중상위권 대학까지 많이 확대됐는데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수능의 변별력이 갖춰졌을 때 이야기"라며 "그저 2월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밖에 학생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혼란 부추기는 입시 정책 말… 말… 말…

"경우에 따라 본고사 볼 수도 있다" "수능 점수제·등급제 병행 실시를"

앞으로 수능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이관받을 대교협과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주요 대학 관계자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요 발언을 모아본다.

▲"각 대학별로 다양한 입시제도가 나올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본고사를 볼 수도 있다."(지난 7일 손병두 차기 대교협 회장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옛 본고사 형식의 개별과목 문제나 수학풀이식 문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요 대학들과 새로운 문제 유형을 함께 연구할 수는 있다."(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 지난 9일 전국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주면 대학이 논술 실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된다. 대학자율화가 되면 논술 가이드라인은 자연스럽게 필요 없어진다."(지난 9일 정완용 전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장)

▲"올해 입시에서는 수능 점수제와 등급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 (16일 한국교총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한 입장)

/정상필기자 camus@

선원 2명 시신 추가 발견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화물선 이스턴 브라이트(EASTERN BRIGHT)호에 탑승했다 실종된 선원 2명이 시신으로 추가 발견됐다.

1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북동쪽 4마일 해상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이 실종 선원 이덕구(47·갑판수)씨로 확인됐다. 이어 오후 7시 10분께는 이씨의 시신이 발견된 해역 인근에서 서동수(53·갑판장)씨의 시신이 새우조망 어선 선원 김모(47)씨에 의해 발견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광주 젠틀맨비뇨기과의원
발기불능수술 약물복용, 주사요법 한다시는 분
상담전화 (062)233-5119

"검찰 신뢰 추락은 우리 업보"

광주 방문 정성진 법무장관 자성 촉구

16일 광주를 방문한 정성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신뢰추락에 대한 내부 자성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고·지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외부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다"며 "누구를 탓하지 말고 업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어 "공직 사회에서 조차 검찰은 '권력기관' 또는 '가진자', '누리는 자'라는 생각이 팽배해있다"며 "과거의 선배들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역사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자성어린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상징하는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은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시간이 걸려도 드러내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묵묵하게 수행한다면 언젠가는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사 개인은 사회의 보편적 상식까지 감안할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처음부터 BBK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었다"며 "하지만 특검법이 너무 급속히 만들어지면서 완성도는 떨어지고 위헌성이 많아 법률적 입장에서 헌재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차기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특검 상설화'에 대해 "특검을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특전캠프 "하강합니다" 16일 담양군 육군 황금박쥐부대에서 열린 '동계 특전캠프' 헬기 레펠(rappel·수직 하강) 훈련장에서 한 여성 참가자가 외줄에 매달린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하강 준비 끝"을 외치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직장인 등 192명이 참가했으며, 사흘동안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공수훈련을 받게 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 선생

영화로 되살아난다

'더 히스토리' 내달 촬영 돌입

광주 출신의 중국 인민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주제로 한 영화가 광주에서 제작된다. 영화제작사 '칸 인터네셔널 홍콩'은 김시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예술성을 가미한 '더 히스토리(The History)'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히스토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천재 피아니스트 장현수를 통해 항일운동에 몸을 던진 음악가 정율성의 삶과 일상을 그리는 휴먼다큐 영화다.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의 항일운동에 투신, '중국인민해방군가' 등 13억 중국인의 가슴을 울린 중국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인 장현수 역은 KBS 개그콘서트 '대화가 필요해' 코너로 2007 KBS코미디 부문 대상을 수상한 개그맨 김대희씨가 맡았다. 상대역은 '가문의 영광', '낭랑 18세'에 출연했던 탤런트 유혜정씨가 출연한다. 또 휴먼다큐와 역사다큐를 넘나드는 과정에서는 원로 배우 최종원씨가 정율성 선생 역할로 출연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월 10일 촬영에 들어가는 '더 히스토리' 제작팀은 광주공항과 남구의 효사랑스튜디오, 정율성의 출생지인 광주히딩크호텔 자리 등 광주 전역을 화면에 담을 예정이다.

김시우 감독은 "정율성은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었지만 고향인 광주를 그리워하며 이국땅에서 쓸쓸히 죽어간 실향민 중의 한 사람"이라며 "이 영화는 이런 인간적인 정율성을 그리는 예술 영화"라고 설명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KCC
DS건설(주)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라 실리콘·방수재·접착제·테이프

이주여성 여객선서 출산

쌍나팔

○…신안군 도서에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 여성이 출산을 위해 여객선을 타고 큰 병원이 있는 도시로 나오던 중 객실 안에서 아이를 낳아 화제.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30분께 신안군 신의면에서 여객선을 타고 목포로 향하던 임신부 윈 케인 투창(여·30)씨가 객실 안에서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

○…투창씨는 출산일이 보름가량 남았으나 진통이 오자 신안군 신의보건지소를 찾았고, 지소장은 임산부가 다니던 목포 한사랑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함께 여객선을 탔지만 30분만에 3.6kg의 아이를 출산.

○…남편 이창우(40·신안군 신의면)씨는 "선상 출산으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너무 기쁘다"고 함박웃음.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